

<가정경영·가족 분야>

도시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윤옥·정서린(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I. 서론

가계는 외부의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유지·발전해 나가는 생태체계로서, 외부 경제 상황의 변화가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이 될 때 가계는 자기조절기능을 갖춘 유기체로서 이러한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고(이경옥, 2000),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행동을 취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Patricia, Alyce & Hira, 1989). 이러한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간 갈등과 적대감의 증가, 결혼의 질과 안정성 감소 등과 같이 개인과 가족의 복지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의 결과와 치료 및 구제는 가족전문가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Bartholomae, 2001).

현재 우리 사회는 고유가의 압박 속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등 사회적 경제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서 가계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족구성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것이 많고, 외부적 환경요인을 개별 가계가 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가계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기상태,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과 같은 사회의 경제적 상황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가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주소득원의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소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별 가계는 소득감소, 실직, 물가상승 등을 가장 불안해한다(정혜경, 1999)고 말한다. 이 외 가계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자원 관리자의 자원관리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유을용, 2002).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적정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에는

가계가 생산의 주체로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는가 하는 것이 가정경제의 핵심이었으나, 오늘날은 가계가 복잡한 경제환경 속에서 소비의 주체로서 주어진 가정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가 하는 재무관리기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재무관리행동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의 차원에서 측정하는 연구들(김효정, 2000; 이상협, 1999; 임정빈 등, 1998)이며, 또 하나는 재무관리행동을 실제적인 관리행동으로 파악하고, 영역별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한 연구들(정운영, 2001; 홍향숙, 1999)이다. 그러나 도시주부들이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연금 자금문제 순으로 가계의 재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이정우·정진희(1999)의 연구결과와 투자의 선택이나 은퇴계획 등이 중요한 재무관리행동 영역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소득문제와 지출문제 등 극히 기본적인 재무관리행동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정운영·황덕순·홍은실(2002)의 연구결과로 보아 다차원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로 측정하는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홍향숙·이종혜(1999) 역시 월평균 가계 소득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물가불안을 많이 느끼는 가계일수록 부채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어 재무관리행동이나 경제적 스트레스를 보다 세분하여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나 위험을 가져오는 사건, 그리고 재정스트레스가 대처행동(강이주·성영애, 1999; 이경옥, 2000), 경제적 복지감(계선자·유을용, 2002), 소비행동(김현일, 2001; 정혜경, 1999), 재정만족도(김효정, 2000; 최자영, 1995), 결혼의 질(이미숙·고선주·권희경, 2000)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있으며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홍향숙, 1999)나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주부가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계관리자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감소시켜 재무관리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로 하여금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는 반면, 경제적 스트레스 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재무관리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실제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가계에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는 사건 변수 및 소득·고용관련 변수만을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하거나 가계의 경제상태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여부, 가계의 월소득, 소득안정성 등에 따라 재무관리행동 수준 또한 하위영역별로 각각 다르다고 하고(정서린·장윤옥, 2007), 남편이 부인

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에서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이미숙 등, 2000) 것으로 보아 가계의 객관적 경제상태와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둘다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개인에 따라 객관적 상태와 이에 대한 지각 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실제 가계가 처한 객관적 상태와 가족구성원이 지각하는 인지된 경제적 어려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관한 보다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오히려 개인의 성장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스트레스 원인의 심각성이나 스트레스의 발생빈도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더구나 가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점차 복잡해져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장윤옥·정서린, 1998). 또한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이해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라는 상황에 대하여 가계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는 가계관리자의 실제 재무관리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대처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계의 경제적 대처방법(강이주·성영애, 1999; 손상희, 1995; 이경옥, 2000; 황덕순, 1995; Bruce, 1996; Danes & Retting, 1995)과 실직과 같은 특정한 재정적 사건에 대한 경제적 대처방법(임혜경, 1998; 최자영, 1995)에 대한 연구, 그리고 경제적 대처방법과 경제적 복지감(유을용, 2002)에 관한 연구 등이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대처방법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계가 취하는 경제적 대처행동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재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Schnittgrund & Backer, 1983)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이 현재의 소비지출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재무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객관적 경제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가계가 행하는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계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행동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대처행동과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재무관리행동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재무관리행동의 각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대상의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객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투자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소득·지출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위험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부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가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개발·실행·점검·평가하는 행동(이기춘 등, 2000)을 의미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8), 특히 경제위기시 가계의 경제력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계선자·정미선, 2007). 박명숙(2003)은 가계의 경제적 위기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개인의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도 발생하지만, 특정 개인 혹은 가계의 잘못된 재무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하며,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개인의 재무관리능력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재무관리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정우·정진희(1999)는 도시주부들이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연금 자금문제 순으로 가계의 재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정운영·황덕순·홍은실(2002)은 투자의 선택이나 은퇴계획 등이 중요한 재무관리행동 영역으로 중요시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득문제와 지출문제 등 극히 기본적인 재무관리행동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무관리행동을 영역별로 측정한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운영(2001)은 재무관리행동을 현금 및 지출관리, 세금관리, 차용관리, 위험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로, 배희선·최현자(1996)는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으로, 홍향숙(1999)은 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행동으로, 그리고 Parrotta와 Johnson(1998)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무관리연구들은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취업상태, 직업, 가족크기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총소득, 총저축액,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 총부채, 총자산, 매달 갚아야 할 부채 금액 등과 같은 가계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소득적정성에 대한 인지도나 경제적 상승감, 경제적 기대감, 상대적 박탈감, 주관적 경제 수준 평가, 생활격차감, 경기전망인지, 자원적정인지도 등의 가계 재정관리자의 주관적 특성 등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가계의 주관적 특성이 객관적 특성보다 재무관리행동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경제적 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할 때 가계의 경내·외의 사건과 자극에 의하여 경제적 안정이 위협당한 상태를 경제적 불안이라고 한다(황덕순, 1995). 또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경제적 불안이 고용과 소득 요인,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감정 요인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하며,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구조적 요인으로서 소득과 고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소득원천의 불확실성, 재정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 고용 불안정, 가족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히 못한 소득은 경제적 압박을 유발하고, 개인과 가족체계 전체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거나 미래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결혼의 질과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Vandsburger, 2001).

1) 객관적 경제상태와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소득은 재정상태 및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무관리행동에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고보선·이영호, 1995; Danes & Retting, 1993), 정운영(2001)은 월평균 소득이 많으면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 빚을 지지 않고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차용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부채를 이용한 투자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적절한 부채를 이용한 체계적인 투자관리행동은 가계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정운영·김경자(2004)는 가계 소득의 안정성은 가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이를 매개로 위험관리행동을 높이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또한 Kennickell 등(1997)은 고소득층은 정교한 방법으로 재무계획을 세우고, 재무관리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정

보탈용과 재무전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무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구주 직업은 현재와 미래소득 뿐 아니라 가계의 소비선호도, 가계의 자산축적행동이나 부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저축하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소득이 불규칙한 가계보다 낮은 비율을 저축한다(이승신 등, 1996). 정미선(2006)도 남편의 직업은 가계소득 및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김나연(1997)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지만, 김경숙(1993)은 취업주부의 재무관리행동이 전업주부에 비해 변화지향적이라고 하고 황덕순(1995)도 주부의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변화지향성이 낮은 규범적 절약행동의 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기혼여성의 직업과 재무관리행동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홍향숙·이종혜(1999)는 소득안정성이 높고 취업주부인 경우 소득관리행동과 지출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며,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총부채액이 적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다. 이와 달리 김효정(1999)은 남편과 아내의 취업유무, 월가계생활비, 월가계저축액, 재정상태 인지도는 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홍향숙(1999)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가계들이 다른 가계들보다 소득관리행동과 부채관리행동을 유의하게 덜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계에서 세금관리행동을 대체로 잘하고 있으며, 지출관리행동은 덜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소득이 안정적인 가계와 소득은 불안정하나, 고용이 안정적인 가계들이 투자관리행동을 잘하고, 고용이 안정된 가계들은 다른 가계들보다 위험관리행동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와 재무관리행동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숙 등(2000)은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양자 역할에 대한 압력과 기대를 지니고 있는 남편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에서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경제적 긴장사건이 그대로 가족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이 삶의 질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정혜경(1999)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주관적·객관적 불안, 소득불안과 고용불안으로 구분하고 주부들은 객관적인 가계의 경제적 상태보다 주관적으로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의 월평균 소득, 남편의 취업여부, 자산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주·객관적 불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가계의 소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정서린·장윤옥(2007)은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소득·자산불안, 재정안정성 불안이 높은 주부들이 낮은 주부들 보다 투자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지출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 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지출불안과 부채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 보다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영역에서 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가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는 재무관리행동 수준 역시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이 결혼의 질, 만족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미숙 등, 2000), 소득·고용상태와 관련된 객관적 경제 불안정이 가계의 소비행동(정혜경, 1999), 경제적 대처행동(황덕순, 1995), 재무관리행동(홍향숙, 1999)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주부가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3. 경제적 대처행동과 재무관리행동

이경옥·정용선(1999)은 대처행동을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갈등이나 긴장, 부담을 극복하거나 감소시키려고 인지적, 행동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을 대처행동이라고 정의하며,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라는 자극 요소에 대응하여 가계가 새로운 가계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전략적 행동과정을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이라고 말한다. 또 이들은 경제위기 대처행동을 임시방편, 욕구억제, 정보추구, 무관심, 소득확장, 무기력 대처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부들은 가계의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으로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자금을 차용하거나 카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대처행동을 의미하는 임시방편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을용·계선자(2003)는 주부의 재정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가계의 다양한 재정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주부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반응으로 정의하고, 계획관리행동, 지불연기행동, 차용행동, 상담·정보탐색 행동, 구매관리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주부는 계획관리행동과 구매관리행동을 많이 하고, 지불연기행동을 가장 적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출, 자산, 소득, 부채스트레스가 높은 주부들이 낮은 주부들보다 지불연기행동, 차용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출과 부채스트레스가 높은 주부들은 상담·정보탐색 행동을 그리고 지출, 자산, 소득스트레스가 높은 주부들은 구매관리행동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불연기행동과 구매관리행동을 적게 하는 주부들과 상담·정보탐색행동은 많이 하는 주부들이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oydanoff(1990)는 경제적 곤란에 대한 대처행동을 매일매일의 지출기록과 계획적인 지출,

가계운영의 목표설정 등을 포함하는 재정적 관리, 중고품 시장에서의 구매, 교환, 판매, 공판장이나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경제활동, 의복의 직접 제작과 수리, 완성이 아닌 조립제품의 구입 등을 포함하는 자기노동력의 활동, 가장 이외 가족원의 취업 및 부업, 근로시간의 연장 등을 포함하는 가족노동력의 활동, 그리고 보험이나 저축의 이용, 소비자신용이나 대출과 같은 행동 등을 포함하는 재정규모의 확대에 구분하고 있다.

손상희(1995)는 경제위기 대처행동을 자급자족과 물품절약 행동 등을 포함하는 절약 및 노동력의 활용, 소득을 증가시키고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재정관리, 부모, 친지, 친구로부터 도움을 얻는 의존적 행동, 가족원의 취업이나 재산의 처분 등과 같은 행동을 포함하는 한계적 행동, 소비를 신중히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소극적 노력,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이주·성영애(1999)는 소비지출절감 노력, 자산이용 노력, 소득창출 노력으로 구분하는데, 가계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조사된 소비지출 항목 모두에서 지출절감 노력을 더 많이 하며,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해서 적극·보험해약을 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최자영(1995)은 재정적 사건에 대한 대처전략을 절약구매, 자산이용, 차용행동, 지불연기로 구분하며, 도시가계는 절약구매, 차용행동방법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취업주부들이 차용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는 취업주부들이 사회적 지원망의 이용기회가 높고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유을용(2002)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주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문제 상담이나 정보탐색 행동을 하고 주변의 정보를 교환하며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재정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강기정(1999)은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은 효율형의 가계재무관리를 하는 취업주부의 경우 재정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한다.

Bruce(1996)은 가계의 재정위기에 있어 대처전략을 크게 수입의 증대와 지출의 삭감 등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Martin과 Burr(1992)는 경제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인지적 전략과 주변의 친지나 친척 등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환경적 전략, 개인의 자원을 좀 더 개발시키는 발달적 전략이 경제위기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유용하다고 말한다.

가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계가 취할 수 있는 대처전략이 많을수록 그 가계의 적응능력은 강해지고 효과적 대처를 할 수 있으므로(임혜경, 1998) 경제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재정적 사건에 대해 가계는 어느 특정 대처행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처방안을 적절히 준비해야 하며, 가계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적절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30대 이상의 도시가계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그 가족이 속한 가정생활주기의 단계를 추측할 수 있게 하고,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구학적 변수이기 때문에, 또 이와 더불어 가계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노자경, 1996)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30대 이상의 주부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5)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주부 연령	31 - 40 세	55(24.4)	남편 연령	31 - 40 세	15(6.7)	부부의 추가소득	없다	196(87.1)
	41 - 50 세	167(74.2)		41 - 50 세	195(86.7)		있다	29(12.9)
	51세 이상	3(1.3)		51세 이상	15(6.7)			
주부 학력	중학교 졸	14(6.2)	남편 학력	중학교 졸	6(2.7)	소득 안정성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27(12.0)
	고등학교졸	111(49.4)		고등학교졸	83(36.9)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40(17.8)
	전문대 졸	36(16.0)		전문대 졸	30(13.3)		그저 그렇다	54(24.0)
	대학 졸	59(26.2)		대학 졸	80(35.6)		대체로 안정적이다	68(30.2)
	대학원 졸	5(2.2)		대학원 졸	26(11.5)		매우 안정적이다	36(16.0)
가족원 수	3명	27(12.0)	주거 형태	월 세	10(4.5)	주부 취업	전업주부	120(53.3)
	4명	144(64.0)		전 세	23(10.2)		취업주부	105(46.7)
	5명	39(17.3)		자 가	192(85.3)	남편 취업	미취업	24(10.7)
	6명	15(6.7)			취업		201(89.3)	취업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5.3)	월평균 생활비	100만원 미만	25(11.1)	재정 안전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22(9.8)
	101 - 200만원	38(16.9)		101 - 200만원	89(39.5)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	51(22.7)
	201 - 300만원	80(35.5)		201 - 300만원	67(29.8)		그저 그렇다	66(29.3)
	301 - 400만원	38(16.9)		301 - 400만원	30(13.3)		다소 안전한 편이다	74(32.9)
	401 - 500만원	33(14.7)		401 - 500만원	8(3.6)		매우 안전하다	12(5.3)
501만원 이상	24(10.7)	501만원 이상	6(2.7)					
합계	225(100.0)	합계	225(100.0)	합계	225(100.0)			

2.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5년 4월~5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7개 구에 각 40부씩 2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각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급의 담당교사에게 질문지의 내용 및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담당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각 가정배부·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245부였으며, 이중 편부모 가정의 질문지나 부실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25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1) 객관적 경제상태

객관적 경제상태는 유을용(2002), 황덕순(1995), 정혜경(199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계의 월소득, 일정 금액의 소득이 일정한 시기에 가계로 들어오는가를 알아보는 소득안정성, 가계의 재정안정성, 가장의 주소득외에 추가소득이 있는지의 여부, 남편과 주부의 취업여부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2)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는 Vandsburger(2001), 유을용(2002)의 척도를 기초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1 문항은 2개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34문항을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 I 은 가계의 총소득·자산수준, 저축수준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득·자산 스트레스(9문항)로, 요인 II 는 은퇴후나 노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마련, 그리고 비상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안되어 불안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안정성 스트레스(7문항)로, 요인 III 은 경조사, 친인척 관련 행사,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택적 지출 스트레스(6문항)로, 요인 IV 는 생활필수품 구매와 각종 공과금, 자녀의 등록금 납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수적지출 스트레스(6문항), 그리고 요인 V 는 은행, 회사, 주변사람들로부터 빌린 부채가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채 스트레스(5문항)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70.4%를 설명하며,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93, .92, .90, .91, .89이다.

2) 경제적 대처행동 척도

경제적 대처행동 척도는 노자경(1996), 이경옥(2000), 임혜경(1998), 최자영(1995)의 척도를 기초로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경제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2개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3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34문항을 경제적 대처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 I 은 각 비목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거나 계획에 없던

지출은 피하고, 돈을 사용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적 지출 대처행동(7문항)으로, 요인Ⅱ는 신문이나 서적 등을 통해 경제상식을 익히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정의 재정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수집·활용 대처행동(10문항)으로, 요인Ⅲ은 여러 상품의 품질·가격들을 비교하고, 싸게 파는 시기와 장소를 이용한다거나, 구입하는 재화의 양을 줄이고, 작은 고장은 직접 고쳐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절약구매·사용 대처행동(7문항)으로, 요인Ⅳ는 우선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여 사용한다거나, 지불연기, 신용카드 이용, 친구나 친척에게서 빌려 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채이용 대처행동(6문항)으로, 그리고 요인Ⅴ는 현재 수입을 보다 늘이기 위해 부업을 한다거나 가장 외 다른 가족구성원도 직업을 갖기 위해 애쓴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 대처행동(4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47.1%를 설명하며,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84, .78, .79, .73, .60이다.

3) 재무관리행동 척도

재무관리행동 척도는 김효정(2000), 정운영(2001), 홍향숙(199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5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으로 여겨지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2개 요인에 걸쳐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4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9문항을 재무관리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Ⅰ은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 증권투자, 부동산투자의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므로 투자관리행동(12문항), 요인Ⅱ는 가계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한 가계 지출의 효율적인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지출관리행동(17문항), 요인Ⅲ은 질병, 사고, 실업 등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소득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므로 위험관리행동(10문항), 그리고 요인Ⅳ는 부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상환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므로 부채관리행동(10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48.7%를 설명하며,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93, .89, .89, .85이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객관적 경제상태															
1.월소득															
2.소득안정성	.192*														
3.채정안정성	.533*	.440*													
4.추가소득	.202*	.021	.118												
5.주부취업	.074	-.119	-.128	-.094											
6.남편취업	.357*	.198*	.358*	.090	-.052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7.소득자산	-.543*	-.257*	-.701*	-.165*	.090	-.290*									
8.채정	-.491*	-.235*	-.615*	-.187*	.056	-.232*	.732*								
9.선택적지출	-.347*	-.140*	-.484*	-.133*	-.002	-.251*	.587*	.710*							
10.필수적지출	-.500*	-.406*	-.652*	-.119	.107	-.331*	.708*	.678*	.664*						
11.부채	-.492*	-.270*	-.641*	-.207*	.120	-.306*	.688*	.592*	.539*	.699*					
경제적 대처행동															
12.계획적지출	-.194*	-.096	-.173*	-.050	-.025	-.055	.244*	.266*	.247*	.248*	.141*				
13.정보수집	.114	-.054	.045	.054	-.035	.196*	-.102	-.098	-.011	.013	-.001	.321*			
14.절약구매	-.268*	-.149*	-.305*	-.137*	.122	-.078	.366*	.249*	.287*	.416*	.511*	.032	.143*		
15.부채이용	-.230*	-.104	-.241*	.014	.033	-.086	.341*	.312*	.243*	.298*	.277*	.432*	.301*	.112	
16.소득창출	-.155*	-.167*	-.156*	.000	.104	.068	.151*	.146*	.065	.211*	.206*	.176*	.357*	.145*	.321*

* p < .05

4. 추가소득여부 : 0=없다 1=있다 5. 주부취업 : 0=전업 1=취업 6. 남편취업 : 0=무직 1=취업

1.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은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을 4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에는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beta = .440$), 부채스트레스($\beta = -.271$)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매우 복잡하고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

<표 3>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투자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재무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B	β	B	β	B	β
객관적 경제 상태	월소득	.068	.115	.008	.014	-.007	-.011
	소득안정성	.051	.080	.056	.087	.072	.111
	재정안정성	.096	.127	-.081	-.108	-.052	-.069
	추가소득 여부	.270	.110	.218	.089	.158	.064
	주부취업 ^a	-.069	-.043	-.018	-.011	.022	.013
	남편취업 ^b	.454	.168*	.463	.172*	.214	.080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자산스트레스			-.200	-.202	-.121	-.122
	재정안정성스트레스			-.067	-.074	-.025	-.027
	선택적지출스트레스			.133	.148	.109	.121
	필수적지출스트레스			-.005	-.005	-.056	-.065
	부채스트레스			-.207	-.264**	-.212	-.271**
경제적 대처행동	계획적 지출					.007	.006
	정보수집·활용					.594	.440***
	절약구매·사용					-.085	-.078
	부채이용					.068	.054
	소득창출					-.007	-.005
Constant		1.772		3.617		1.991	
Adjusted R ²		.154		.227		.419	
F값		6.423***		5.533***		9.103***	

* p<.05 ** p<.01 *** p<.001

a. 주부취업 : 0 = 전업 1=취업 b. 남편취업 : 0 = 무직 1=취업

된다. 다시 말하면 신문이나 서적, 컴퓨터 등을 통해 경제상식을 익히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정의 재정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로운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현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미래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관리행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 부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월평균가계소득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총부채액이 적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 홍향숙·이종혜(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계들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투자에 투입할 자유재량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채 탕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때문에 투자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2.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소득·지출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소득·지출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소득·지출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재무관리행동		소득·지출관리행동			
		B	β	B	β	B	β
객관적 경제 상태	월소득	.021	.049	.025	.059	.034	.081
	소득안정성	.007	.016	.016	.035	.031	.067
	재정안정성	-.018	-.034	.004	.007	.018	.034
	추가소득 여부	.013	.007	.000	.000	-.080	-.045
	주부취업 ^a	-.125	-.108	-.109	-.094	-.085	-.074
	남편취업 ^b	.318	.165*	.329	.171*	.124	.064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자산스트레스			-.093	-.132	-.082	-.116
	재정안정성스트레스			.081	.125	.079	.122
	선택적지출스트레스			.105	.163	.074	.115
	필수적지출스트레스			.117	.189	.055	.089
	부채스트레스			-.117	-.209*	-.108	-.193*
경제적 대처행동	계획적 지출					.245	.277***
	정보수집·활용					.380	.395***
	절약구매·사용					-.032	-.041
	부채이용					.197	.221***
	소득창출					.014	.015
Constant		2.916		2.581		.357	
Adjusted R ²		.046		.114		.544	
F값		1.686		2.432**		15.062***	

* p<.05 ** p<.01 *** p<.001

a. 주부취업 : 0 = 전업 1=취업 b. 남편취업 : 0 = 무직 1=취업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은 주부의 소득·지출관리행동을 5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소득·지출관리행동에는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beta=.395$), 계획적 지출 대처행동($\beta=.277$), 부채이용 대처행동($\beta=.221$), 그리고 부채스트레스($\beta=-.193$)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계획적 지출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채이용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부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소득·지출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소비지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계획에 없던 지출은 피하는 등 계획적인 지출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면 가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으로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여 우선 사용한다거나, 지불연기, 신용카드 이용, 혹은 친구나 친척에게서 빌려 쓰는 등의 부채이용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지출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용이라는 가정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구매력을 미리 당겨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적절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채를 이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기만 극복하는 관리행동으로 주부의 심리적인 부담감만 가중시킬 뿐(유을용·계선자, 2003)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만한 바람직한 대처행동으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 가계의

대다수가 부채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있어 가계부채사용은 보편적인 가계재무관리형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주인숙·이연숙, 1996)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위험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위험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은 주부의 위험관리행동을 2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위험관리행동에는 필수적지출 스트레스($\beta=-.368$),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beta=.256$), 재정안정성($\beta=-.235$), 그리고 월소득($\beta=.234$)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필수적지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정안정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위험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의 현재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재정자원을 가진

<표 5>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위험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재무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B	β	B	β	B	β
객관적 경제 상태	월소득	.146	.309***	.114	.241**	.110	.234**
	소득안정성	.067	.044	-.003	-.005	.006	.011
	재정안정성	-.067	-.112	-.156	-.261*	-.140	-.235*
	추가소득 여부	.065	.033	.076	.039	.050	.026
	주부취업 ^a	.002	.002	.029	.022	.057	.044
	남편취업 ^b	.023	.031	.025	.012	-.084	-.039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자산스트레스			-.003	-.004	.027	.034
	재정안정성스트레스			.044	.060	.049	.068
	선택적지출스트레스			.016	.022	-.006	-.009
	필수적지출스트레스			-.225	-.327**	-.253	-.368***
	부채스트레스			-.043	-.069	-.019	-.030
경제적 대처행동	계획적 지출					.150	.153
	정보수집·활용					.274	.256***
	절약구매·사용					-.063	-.073
	부채이용					.013	.013
	소득창출					-.013	-.030
Constant		3.193		4.192		3.130	
Adjusted R ²		.085		.141		.247	
F값		3.282**		3.083**		4.133***	

* p<.05 ** p<.01 *** p<.001

a. 주부취업 : 0 = 전업 1=취업

b. 남편취업 : 0 = 무직 1=취업

가계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무관리행동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월소득이 높은 가계는 현재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미래를 대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질병, 사고, 실업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소득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관리행동들을 잘 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 본 연구에서는 재정안정성이 낮을수록 위험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재정안정성이 낮은 가계들이 현재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수준과 재정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부채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부채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부채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재무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B	β	B	β	B	β
객관적 경제 상태	월소득	.050	.100	.050	.100	.044	.088
	소득안정성	-.002	-.003	-.036	-.066	-.024	-.045
	재정안정성	-.047	-.074	-.014	-.021	.003	.005
	추가소득 여부	.092	.044	.147	.071	.036	.017
	주부취업 ^a	-.026	-.019	-.012	-.009	.019	.014
	남편취업 ^b	.129	.057	.103	.045	-.043	-.019
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자산스트레스			.052	.062	.068	.082
	재정안정성스트레스			.097	.127	.075	.098
	선택적지출스트레스			.073	.096	.066	.087
	필수적지출스트레스			-.223	-.305*	-.253	-.346***
	부채스트레스			.056	.084	.082	.123
경제적 대처행동	계획적 지출					.006	.006
	정보수집·활용					.407	.357***
	절약구매·사용					-.178	-.194**
	부채이용					.349	.331***
	소득창출					-.005	-.004
Constant		3.327		3.042		1.276	
Adjusted R ²		.015		.051		.357	
F값		.545		1.015		6.995***	

* p<.05 ** p<.01 *** p<.001

a. 주부취업 : 0 = 전업 1=취업 b. 남편취업 : 0 = 무직 1=취업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은 주부의 부채관리행동을 35.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위험관리행동에는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beta = .357$), 필수적지출스트레스($\beta = -.346$), 부채이용 대처행동($\beta = .3316$), 그리고 절약구매·사용의 대처행동($\beta = .194$)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정보수집·활용 대처행동과 부채이용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필수적지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절약구매·사용의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부채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채를 다양하게 이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상환과 관련된 부채관리행동을 잘 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 필수적지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채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부채가 가계의 신용이라는 자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본적인 가계지출조차 부담스러운 가계는 부채를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부채관리행동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적은 집단이 절약구매와 지불연기를 통해 재정적 사건에 대비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소득과 순자산이 적은 가계의 경제적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한 최자영(1995)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재무관리행동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령기 자녀를 둔 30대 이상의 주부 225명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가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투자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가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계획적 지출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채이용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부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소득·지출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부가 필수적지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정안정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위험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부가 정보수집·활용 대처행동과 부채이용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필수적지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절약구매·사용의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부채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각 하위영역에 정보수집·활용의 대처행동이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들이 재무관리행동을 함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서적, 컴퓨터 등을 통해 경제상식을 익히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정의 재정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정보사회라 일컬어지고 경제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를 고려해볼 때 정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주부들은 자신의 가계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능력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필수적지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위험관리행동과 부채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생활필수품 구매와 각종 공과금, 자녀의 등록금 납부 등 필수적 지출조차 어렵다고 느끼는 주부들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경제적 여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사용하고 이를 관리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수적지출 스트레스가 높은 가계일수록 실직이나 질병, 사고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고, 효율적인 부채의 이용이 필요한 가계이므로 이들의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기정,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강이주·성영애,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1999.
- 계선자·유을용, "도시전업 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26, 2002.
- 고보선·이영호,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1995.
- 김경숙,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나연,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에 따른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 및 사용·관리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현일, "경제적 스트레스감이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효정,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1999.

- 김효정,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2000.
- 노자경,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박명숙,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변수”. 대한가정학회지, 41(11), 49-60, 2003.
- 배희선·최현자,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 준비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1996.
- 손상희,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1995.
- 유을용, “도시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경옥,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미숙·고선주·권희경,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2000.
- 이상협,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1999.
- 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1996.
- 이정우·정진희,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51-65, 1999.
- 임정빈·조미환·이영호,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1998.
- 정미선,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행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서린·장윤옥, “고용·소득관련 변수와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5(10), 57-91, 2007.
- 정운영, “재무관리체계모델을 적용한 도시가계의 재무건전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정운영·김경자, “가계 재무위험 구성 요소들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0), 11-22, 2004.
- 정운영·황덕순·홍은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재무관리체계모델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25-138, 2002.
- 정혜경,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주인숙·이연숙,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1-126, 1996.
- 최자영,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1995.
- 홍향숙,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홍향숙·이종혜, "개인·가계·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2-24, 1999.
- 황덕순,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Bartholomae, S., "Financial stress and coping resources: A comparative analysis of White, Blacks, and Hispanics",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a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2001.
- Bruce, M. L., "Problem-and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in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 Income expansion versus money devaluation",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at Saint Louis University, 1996.
- Danes S. M. & Retting K. D.,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4), 365-389, 1993.
- Deacon, R. E. & Firebaugh, F. M., "Family resource management-Principles and application", 3rd ed..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Inc., 1998.
- Kennickell, A. B., Starr-McCluer, M. & Sunden, A. F., "Saving and financial planning : Some findings from a focus group",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8, 1997.
- Parrotta J. L. & Johnson P. J.,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1998.
- Patricia, M, Alyce, M., Hira,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s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1989.
- Schnittgrund, K. P. & Backer, G., "Financial Management of low-income urban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261-270, 1983.
- Vandsburger E. H.,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y resources on the functioning of families experiencing economic distress",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a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2001.
- Voydanoff P. & Donnelly B. W.,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1989.